

지역 소식통

아동·여성안전 운영위 개최

김제시, 지역안전망 구축 정보 교류로 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김제문화예술회관 꿈다락 청소년 토요일화학교 예술감상 교육생 모집

김제시(김제문화예술회관)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토요일 문화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예술 향유 프로그램인 2017 꿈다락 토요일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감상의 기회를 마련하여 교육생을 5월 11일까지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예술향유 능력을 높이고 문화예술 정서 함양과 가족 간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별 예술 작품을 이룬 중심에서 탈피하고 작품 현장에서 음악·미술·공연작품 감상 및 토론 등을 병행하여 재미와 즐거움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는 토요일화학교 예술감상 교육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2017년 김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복 부시장)를 개최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간 협력을 통한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성폭력·가정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연대의 위원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관련 기관, 아동가족지원시설,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및 정보교류 자리로 관내 지역안전망 현황, 2016년도 사업실적과 2017년 계획 보고, 지역연대 활성화 방안과 유관기관 관련사업 등에 대해 의견교환 및 자유로운 토의로 진행되었다.

금년 지역연대 사업은 "함께 만들어요! 아동·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여성폭력 관련 서비스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피해 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운영,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탈인형극 뮤지컬 공연, 아동·여성 폭력 방지 캠페인 전개 및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김제시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이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의 시 도의된 내용을 지역연대 사업에 반영해 각종 폭력 발생이 근절되고 아동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지역연대 사업이 활발하고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밀리터리 테마파크 현장학습장 '인기'

2011년 4월에 개장한 완주군의 밀리터리 테마파크(서바이벌 게임장)가 매년 1만5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시가지전투장(MOUT 경기장), 런닝슈팅장, 증화기 사격장, 실내사격장을 운영하며 한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특히 매년 전국 각지의 학생들의 현장학습체험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울러 현재까지 체험객은 2,600여명이 다녀갔으며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예년보다 체험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7개 학교, 600명이 이용했고, 5월에는 15개 초·중·고등학교, 1400여명이 예약돼 있다.

게다가 대부분 전라북도 외의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체험해 완주군 홍보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amp.wanju.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이용 문의는 전화(063-290-2764)로 가능하다.

군 시설공원사업소 관계자는 "5월 연휴기간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완주군 홍보와 군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가정의달 행사운영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은 가정의 달(매년 5월)을 맞아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의 의미를 인식하는 도서관 행사를 통해 도서관과 어우러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가정의 달 행사로 1일부터 31일까지 가족 관련 추천도서 목록 배부, 가족 관련 도서 표지 전시, DVD 전시, 도서관 속 우리가족(가족 즉석사진 찍어주기)이 한 달 동안 지속된다.

8일부터 19일까지는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그림책 '엄마의 말' 원화전시회, 24일에는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알록달록 색깔 책 '숲 속 재봉사의 꽃이 드레스 최향랑 굴'과 함께하는 도서관 체험, 31일에는 가족 영화 '업' 상영이 마련돼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어린이날 대축제 개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오전 9시 30분 완주군청서



완주군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심어주고 온 가족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날 대축제'를 오전 9시 30분부터 완주군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초록이 짙어가는 5월의 싱그러움 속에 온 가족이 함께 완주군청으로 소풍을 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미술공연을 시작으로 모범어린이 등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20명)과 아동권리헌장 낭독, 완주소녀소년 합창단과 내빈이 함께하는 어린이 노래 제창 등으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체험 및 공연행사로는 △어린이 뮤지컬 퍼터팬 △사커스 △비보이 △3D프린팅 △목공 및 리본아트 △페이스페인팅 △사생대회 등 20종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물놀이장을 마련하고, 소방체험 및 구급차를 대기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어린이들이 자기발전

완주군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5일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심어주고 온 가족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날 대축제'를 오전 9시 30분부터 완주군청에서 개최한다.

자전거를 타며 숲사탕을 만들고, 모의투포 체험, 아동권리 나무 만들기, 어린이가 꿈꾸는 완주 발언 등이 마련돼 있어 어린이와 가족이 아동권리를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또한 전북현대모터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구공과 피클 등 기념품을 후원하였으며, 기념품은 축제에 참여하는 어린이

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주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장은 "가정이 행복해야 회사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며 어린이날 행사도 이런 취지로 완주군과 함께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좋은 추억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놀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카네이션 손거울 만들기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67개소 한울타리 행복의 집(그룹-홈) 입소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손거울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카네이션 손거울은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대신하여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화목을 도모하며 그 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 자 그룹-홈 지원원이 앞장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카네이션 손거울 만들기 프로그램은 우드(나무)에 얹은 거울이 있고 뒷

면은 카네이션 꽃 그림이 그려져 있어, 어르신들이 각각 좋아하는 색을 골라 색칠을 하면 손거울과 카네이션 꽃이 완성된다.

색칠을 함으로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두뇌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잠시나마 우울과 고립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최근 늘어나는 노인 우울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를 측정하여 내 혈압, 혈당 등 자기수치 알기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사전 예방관리하고, 자가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용지면, 장애인과 나눔 행사

김제시 용지면(면장 조기문)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면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위문품도 전달하여 장애인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용지면 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사론의 집에서 생활장애인들과 함께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급식봉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론의 집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까지 20여명이 9명의 직원들과 함께 가족처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 시설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의 봄 축제에 물들다

춘향제 (5월)

철쭉제 (4~5월)

여행을 판다를 나와의 만남

지리산둘레길 (3~5월)

요천번 빛꽃 (4월)

요천자전거길 (5월)

춘향남원 사랑의 편지

남원시